

정 화

1368. 죄 없으시고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서 정화의 신비를 거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자녀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의 신비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신비입니다. 그녀는 역사 전체에 필요한 정화를 모아 두었습니다. 그녀는 정화시키는 연못입니다. 그 깨끗한 물 안에 세상의 온갖 비참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변화시키시고 바꾸시어 새로운 삶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마리아의 정화의 신비를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오한 차원 속으로 깊이 파고 들면서 그 안에 내포된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비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깨끗함의 신비였습니다. 그녀는 넘치도록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깨끗함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물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까지(요한 5,7)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모성적 사랑은 언제나 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영혼은 어느 때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빛이 갹아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사랑의 신비스런 물줄기 안

에서 모든 이가 순수하게 됩니다.

1369. 가장 깊은 정화는 향구한 피앗(FIAT)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영혼을 활짝 열고 철저히 피앗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티끌로부터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1370. 사랑으로 변화된, 사랑으로 가루가 된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가루로 변화되십시오. 차들은 자신이 가루가 되는 것을 보며 신음할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때 그대 존재 전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루가 수도원을 밝히는 섬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하느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은 불이십니다. 그대를 태우도록 거기 가만히 있으십시오. 거기서 죽으십시오... 거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1371. 사랑의 불꽃이 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타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파괴합니다.

불꽃은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타 없어지도록 허락할 때에만 그렇게 합니다.

1372. 정화에 대한 새로운 갈망은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새로

운 호소입니다. 이 새로운 요구는 그대 존재의 마지막 구석까지
정화할 것입니다. 그대는 거기서 이 정화의 신비를 살아야만 합
니다.

1373. 정화는 마전장이의 표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
리의 삶을 정련시키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깊은 심연으로 이
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바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느님 사랑의 불을 거쳐야만 합니다.

1374. 정화의 빛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보다 더 큰 헌신과 성실
함과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마리아의 등불이 되어 그대의 불을 세
상에 보내십시오.

1375. 왜 우리는 정화의 불을, 깨끗하게 하는 마전장이의 표백제
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두려워할까요?

부족하고 정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왜 또 그
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우리가 그분의 불과 물속으로, 그분 사랑의 신비 안으로 들
어갈 때야 비로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 앞에 지나치게 놀란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1376. 온유함 안에서 의 정화. 한결같은 안에서 의 정화, 하느님의 계획을 언제나 받아들임 안에서 의 정화! 언제나 피앗이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377. 관상의 신비로운 영역을 날기를 원한다면 판단의 정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1378. “오 사랑의 산 불꽃이여!” “오 성삼의 불꽃이여!...” 오 풍요롭고 신비스런 정결의 불꽃이여!

모든 완고함과 온갖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저항할 수 없는 불꽃이여!

“오 사랑의 산 불꽃이여!” 나는 당신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일수록 당신이 더 필요하고 그 불꽃은 그 나무 토막을 불후의 명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꽃... 나의 하느님의 불꽃... 당신의 불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불가마 안에서 나를 태워주소서... 오직 당신 불가마의 신비만을 알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나무토막을 살라 주소서.

1379. 우리의 내면 깊숙이까지 모두 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일 수 있는 틈새나 동지를 남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 빛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대의 삶이 사랑 앞에 언제나 열려 있는 국제 전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380. 정화... 보다 더한 정화. 말은 적게 하고 실천으로 옮기기를!
보다 더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유순하고, 이치에 맞는 사람이 되
기를.

1381. 하느님의 불이 그대를 태워 버리기를... 정화를 거쳐 그분
안에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
입니다.

1382. 우리의 삶 자체가 정화입니다. 정화를 위한 특별한 날이 따
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
안에서 이 정화의 신비를 살아갑시다.

1383.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하느님을 숨쉬는 맑고 깨끗한 마음
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관대하고 용
감한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1384.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깨끗한 물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의 물과 피, 그 신적 사랑에 씻겨지고 신비로운
그분의 사랑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사랑 안에 진리
가 됩시다.

1385. 정화... 신비스런 언어. 그 안에 하느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
니다. 그 신비 속을 헤엄치기 위해 정화시키는 사랑의 바다 속
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86. 자잘한 것들과 결코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으십시오.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태워버리십시오. 그대 영혼을 불로 정화시키십시오.

1387. 정화... 정화... 우리 영혼의 갈망이 현실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화가 필요한지요! 우리의 피앗이 우리 어머니 피앗의 메아리가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세상은 피앗이 된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1388.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활을 쏘아 당신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부수어 주신다면... 그 화살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1389. 나는 진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신비스런 진리에 도달하기만을 원합니다. 진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화를 목말라합니다.

내가 정화된다면 그 불로 정화된 나의 깨끗함은 그대에게까지 번져갈 것입니다. 나는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그대도 정화되기를 청합니다.

그대가 정화될 때 내 안에 진리가 자라납니다. 그대에게 있는 진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훔쳐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정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진리가 되도록 그대를 태우십시오.

1390. 오, 주님의 가난한 이여! 신비스럽고 사랑에 빠진, 사랑의 상처를 받은 주님의 종... 땅에 떨어진 밀알이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땅에 떨어져 한밤의 추위와 빛나는 어둠의 안개에 둘러싸여 당신의 침묵 안에 끝까지 머물고 싶나이다.

1391. 땅에 떨어져 소리 없이 죽으십시오. 생명이 꽃피어날 것입니다.

오, 그대가 미칠 듯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저항하지 않고 고요히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대를 사랑하는 저 신비스러운 손길 아래 머물러 보십시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1392. 불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 불을 원합니다. 그에게 닿는 모든 것을 불로 만들기 전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며 쉬지 않고 몸부림칩니다. ...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1393. 오, 나의 친구 하느님, 당신은 불이십니다... 저의 찌꺼기를 태워주소서. 이 찌꺼기는 저를 울게도 하고 미소 짓게도 합니다

이 비참 덩어리가 당신 불 속에서 당신 빛으로 변모되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1394. 주님은 축성된 영혼들이 관대한 봉헌으로 부서질 줄을 알기

를 원하십니다. 통째로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적인 외과의사
께서 당신의 메스로 그대를 찢으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 영혼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술하고. 찢고,
찌르고, 피를 뽑아 세상에 수혈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의 지체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어 아버지께 끊임없는 영광
의 찬미를 바쳐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95. 그대 자신이 검게 타버린 딱딱한 진흙으로 느껴질 때, 점점
더 타 들어가고, 바삭 메말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그대의 타버린 진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목마른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준
비하십시오.

그대의 진흙에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1396. 그대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를 때
... 그대의 밤과 어둠, 허무와 무능, 가난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발치에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나지막하게 말하십시오.
저의 허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허무를 대신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1397.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부재 역시 또
다른 현존이니깐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이 버림 받음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합일에 이르기 위해 깊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1398. 그대의 느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말 없으신 그분의 영원한 침묵 속에 죽으십시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분의 침묵 속에... 그분의 영원한 계획들을 받아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대의 죽음과 가난과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1399. 오 복된 밤이여, 오직 이 밤을 거쳐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라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둔 밤이여!... 당신을 흠송합니다. 비록 당신을 흠송하다 제 삶이 부서질지라도... 오 하느님의 어둔 밤이여! 당신을 흠송하오며 당신의 빛이 저의 어둠이기에 기뻐합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제 믿음을 더해 주소서.

1400. 하느님, 제게서 당신을 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숨어계시는 당신은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당신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거기, 그 거룩하고 신비스런 당신의 은신처 안에 저도 함께 머물게 해주소서.

저를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당신 사랑의 노래의 메아리가 되게 하소서.

1401. 그대도 원하고, 하느님도 원하신다면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낌, 번민, 어둔 밤, 죽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02. 친구의 부재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늘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우정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고, 캄캄한 밤이나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의 우정은 이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403.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신성한 어둠이십니다. 그 심오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느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1404.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아래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 안에서 어둠은 빛으로, 고통은 무한한 기쁨으로 변하고 밤은 낮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1405.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까요. 공허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는 존재이신 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분은 언제나 한결 같으시고 우리 영혼은 그 무한한 충

만함 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1406. 그 놀라움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은 신적 어둠의 영역이요 영원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눈을 감고 감각의 문을 닫으십시오. 하느님께서 직접 그대 영혼의 실체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1407. 중요한 것은 휘몰아치는 폭풍우에도 놀라지 않고 어둔 밤을 굳세고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평화이십니다... 거기 존재의 심연 깊은 곳에 '평화'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1408.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영혼을 흔들어놓는 신비스럽고도 당혹스러운 계획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영혼이 자라게 하고 그에게 성숙함과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혼이 고요히 당신의 계획을 따르고 당신의 신적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길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1409. 하느님께서 말이 없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밤이면 어떻게 낮이면 어떻게습니까?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빛이든 어둠이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 또 하루, 매일 그분의 문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1410.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가운데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신비스런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탐험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비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신비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동안 주님은 안전한 육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1411. 이 모험에 깊이 투신하다 보면 티베리아 호수의 밤처럼 맹렬한 폭풍이 불어 닥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끝장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른 때는 온통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차서 그분의 현존과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과 고요, 번민과 깊은 평화, 슬픔과 은밀한 기쁨... 이 모든 것을 참된 관상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로 갑시다. 문제는 신적인 것으로 투신하는 것입니다.

1412. 성령이시여... 하느님의 영이시여.

저의 더러움을 정화시키시고 삼킬듯한 당신의 불로 태우소서. 그
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합하여 아버지께 바쳐 주소서..

불타는 성령이시여! 저의 반항심들을 태우시고 저로 하여금 보
이지 않는 것에 충실하게 해 주소서.